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은행대출 감소 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약화될 소지
 - ECB 총재,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한 편 필요할 경우 물가안정 조치 가능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금년 성장률 목표 달성 기대. 최근 외환시장 개입 축소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정책 유지. IMF는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금리인상 중단 시기 근접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8%], 달러화 약세[-0.5%], 금리 상승[+1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고용지표 부진 및 금리인상 기대 감소 등이 영향
 유로화 가치는 0.8% 상승, 엔화는 1.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26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4%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4/14일	4/7일	전주말대비			4/14일	4/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137.6	4,105.0	0.79%	국채금리 10y	미국	3.51%	3.39%	12bp
	유럽	466.91	458.94	1.74%		독일	2.44%	2.18%	26bp
	중국	3,338.2	3,327.6	0.32%		영국	3.67%	3.43%	24bp
	일본	28,493	27,518	3.54%	CDS 5y	한국	44bp	45bp	-1bp
	한국	2,571.5	2,490.4	3.26%		중국	68bp	74bp	-6bp
환율	달러지수	101.55	102.09	-0.53%	위험지표	EMBI+	428	414	14bp
	유로화	1.0992	1.0905	0.80%		VIX	17.07	18.40	-7.23%
	엔화	133.79	132.16	-1.22%		WTI유	82.52	80.70	2.26%
	위안화	6.8691	6.8679	-0.02%	원자재	구리	410.7	401.6	2.27%
	원화	1,298.9	1,316.7	1.37%		금	2,004.2	2,007.9	-0.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미국과 유럽 주가 및 원자재 가격은 4/6일 기준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 (+/-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은행대출 감소 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약화될 소지

- 옐런 장관은 최근 일부 은행의 파산 사태가 은행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이 필요로 하는 추가 금리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발언. 아울러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둔화에 따른 의미 있는 실업 증가 및 인플레이션 완화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완만한 성장과 양호한 노동시장의 지속이라는 기존의 경제 전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또한 최근에는 예금인출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연준이 0.25%p의 1회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금리동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 향후 경제는 기존 예상대로 낮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연말에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연준의 보우만 이사는 최근 2개 지역은행의 붕괴로 은행감독시스템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은행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며, 연준은 최근 은행권 불안을 통해 약점을 해결하는 배움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월 수입물가, 예상보다 큰 폭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발신

- 3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비 4.6% 내렸으며, 이는 전월(-1.1%) 및 예상치(-3.7%) 하회. 전월비 기준으로도 2월 대비 낮은 수준(-0.2%→-0.6%).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 및 이에 따른 6월 금리인상 중단 기대 증가 등으로 연결

■ ECB 총재,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한 편. 필요할 경우 물가안정 조치 가능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하고 임금상승률 역시 높는데, 이는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는 의미라고 언급. 필요할 경우 역내 금융안정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 벨기에 중앙은행 분쉬 총재도 추가 금리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금리상승은 결국 수요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독일 경제부, 1/4분기 경기침체 회피 가능 전망.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긍정적

- 1/4분기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의미하는 기술적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최근의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개선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금년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 외환시장 개입 축소

- 이강 총재는 금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고 5%의 성장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 또한 경제가 안정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다른 G20 국가들과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최근 수 년 동안 인민은행의 정기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 외환시장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중국 3월 신규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 부동산 경기 안정 기대 증가

- 70개 주요도시의 신규주택가격은 전월비 0.4% 올라 2월(0.3%)에 이어 상승세 지속.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주택시장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 다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일부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정책 유지. IMF는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 예상

- 우에다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 안정적 달성을 위해 현행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율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IMF는 금년 임금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행이 YCC의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 특히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확신한다면 장기 금리목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7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부총재 강연, 미국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및 NAHB 주택시장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최근의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은행권 불안 영향을 미반영 - The New York Times

(Unemployment Is Low. Inflation Is Falling. But What Comes Next?)

-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양호하다는 신호를 발신. 일례로 실업률은 낮으며,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도 발생. 하지만 이는 경제지표들이 추계 시점 상 SVB 사태 이후의 신용긴축 여파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연준의 금리인상 효과도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실제로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거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결국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소기업의 신용긴축과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빠르면 금년 여름부터 고용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서방의 중국 경제 의존도 축소 노력, 실질적인 효과는 불확실 - Financial Times

(The west is in the grip of a decoupling delusion)

- 서방 국가들은 베트남 등 여타 신흥국으로의 생산기지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 측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대미수출과 대중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대가 현실과 다른 수 있다는 징후가 존재
-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제조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 서방 국가들은 핵심 생산기지 변경에도 동남아 국가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공급망 관련 취약성은 여전할 소지. 최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중국과의 결별보다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실질적 결별이 어렵다는 의미

■ 미국 주가, 금리인상 종료 이후에도 상승 가능성은 낮을 소지 - WSJ

(Fed Pause Wouldn't Necessarily Refresh Stock Market)

- 과거에는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 주가가 대부분 상승. 그러나 지금은 시장 예측대로 금리인상이 종료되어도 주가 상승의 현실화 여부는 불분명. 이는 1/4분기 기업실적 부진 예상,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등에 기인
- 이에 더해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는 소비 감소를 초래하여 기업실적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골드만삭스는 S&P500 기업의 금년 이익 증가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

■ **미국 중소은행,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압박에 직면 - WSI**

(Banks Are Finally Facing Pressure to Pay Depositors More)

- 최근 중소은행의 예금이 대형은행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MMF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중소은행은 기존 예금 유지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특히 보험한도(25만달러) 초과 예금의 비율이 높거나 고객이 일부 산업에 집중된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에 더욱 적극적
- 중소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잠재적인 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 한편 Citigroup, JPMorgan Chase 등 일부 대형은행도 기존 예금주들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추진

■ **미국 부채상한 확대 관련 불확실성, 단기 국채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Money market funds caught up in US debt ceiling stand-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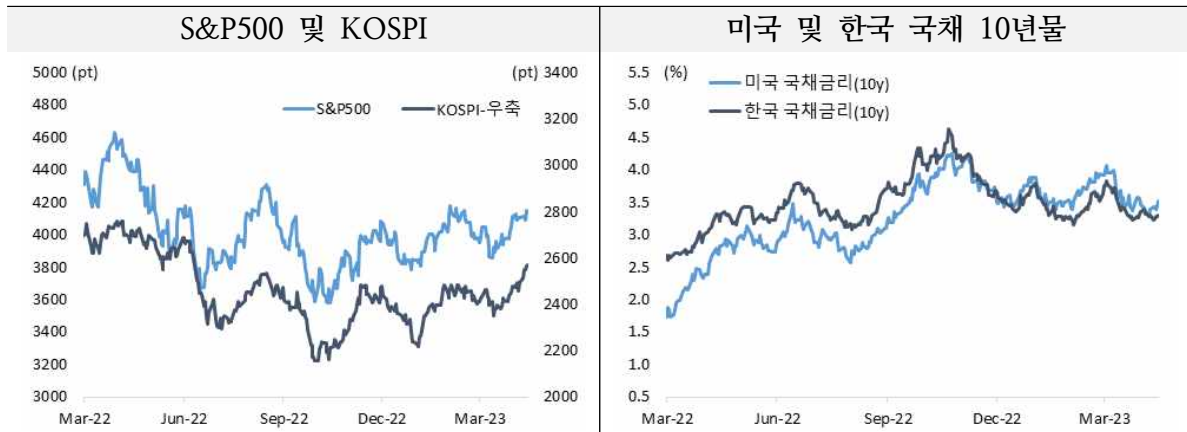
■ **미국 은행 대출 및 예금 증가, 신용여건 안정화 가능성 시사 - 블룸버그**

(Increase in US Bank Loans and Deposits Signal Some Stability)

■ **주요국의 경유 수요 감소, 글로벌 경기침체 신호일 가능성 - 블룸버그**

(Fuel That Powers the Global Economy Is Flashing Recession Sig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